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 광 규*

I.

가족주의란 가족이라는 사회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말한다. 가족의 이익을 앞세운다 할 때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족과 개인 그리고 사회라는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의 두 차원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할 때 이것을 가족주의라 하겠다. 이것은 개인과 집단이라는 대립개념으로 말하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가족과 사회를 대비시켰을 때 사회라는 가족보다 넓은 사회집단의 이익 말하자면 공적 이익보다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할 때 그것을 또한 가족주의라 말할 수 있다.

가족주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려면 그에 앞서 개인, 가족, 사회가 어떠한 사항과 조건에 있는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주의가 주어진 조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문제를 언급하여야 한다.

II.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 발달하였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가족주의가 발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이란 경제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라는 사회적 이념이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경국가였으며 특히 벼농사를 짓는 수도작 농업국가였다. 수도작 농업의 경영을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노동에 의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농업에도 가족보다 큰 마을이나 성씨집단이 단위가 되어 행하는 곳도 있고 기업농과 같이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경영의 단위로 한 것이다.

가족을 농업 경작의 단위로 한 것은 경작만이 아니라 소비도 가족이 단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사회에서 천석꾼, 만석꾼이라는 일부 부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사람들은 가족의 소비를 위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생산의 목적이 가족의 생존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가족에 소속되지 않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소속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할 곳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적 단위만이 아니라 의식주를 전담하는 생활의 단위인 것이다.

일제시대를 지나 6·25사변 전후까지만 하여도 식생활, 주생활은 물론 의생활까지도 사람들은 가족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입을 옷은 의례 집안에 베를을 놓고 여자들이 옷감을 짜고 여자들이 옷을 만들고 집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었다. 일제시대 방직공장이 처음 등장하여 광목을 짜서 팔았기 때문에 광목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물론 옛날에도 오늘날 볼 수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비단이 있었으며 비단 옷을 몇벌 갖고 있었으나 이것도 옷을 만들고 바느질하며 빨래하는 것은 집안에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항에서는 집이 없으면 옷도 입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한편 유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한 조선조에서는 가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조선조의 지도이념은 모든 개인은 가족에 속하고 가족이 가즈런할 때 사회가 안정되며 사회가 안정되면 국가가 안정된다는 사회철학을 가졌던 것이다.

가족이 가지런 하기 위하여는 가족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부장이라 하며 그가 가족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졌으니 이것을 가부장권이라 한다. 가부장권은 가족원의 사회적 행동과 윤리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

기 때문에 가족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가장권은 말하자면 사회에 대하여는 일종의 책임이 되고 가족원인 개인에 대하여는 권리가 되는 것이다.

조선조는 가장에게 가족의 책임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교화의 단위로 하였다. 교화란 사람을 도덕적으로 교육하고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며 교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관혼상제에 따르는 의례로 한 것이다.

관혼상제란 사람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일생을 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마디에서 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예컨대 출생, 결혼, 사망과 같은 특정일에 행하는 의례가 관혼상제인 통과의례이다. 관혼상제를 순수 통과의례라 할 때 이곳에는 출생의례가 첨가되고 제사를 지내는 제례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과의례를 교화의 수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출생의례가 제외되고 대신 제례가 첨가된 것이다.

관혼상제가 출생의례를 제외하고 제례를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생을 주기로 하는 관문에서 행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통과의례의 의미를 갖는다. 통과의례란 개인에 관한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이를테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혼례는 개인의 의례이지만 여러 사람이 축하하여 주는 사회적 행사이다. 따라서 혼례는 교회당, 예식장과 같은 가정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행사도 가정에서 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를 가례라 하고 가례가 집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에서 가례를 가가례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어느 지역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가족주의가 발달하였다.

III.

전통사회에서 발달한 가족주의는 개인보다 가족을 상위에 두는 의식을 말한다. 개인보다 가족을 상위에 둔다는 것은 개인이 가족을 위해 존재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계승과 번영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었다. 결혼의 목적이 자를 출산하여 가정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부의 성생활은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의 금실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여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면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특히 가장인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것을 유교에서는 효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개인보다 가족을 중요시여기는 행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효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드리는 것, 부모의 심신을 편안하게 하여 드리는 것 등도 효도이지만 부모가 생존하고 계실 때 편안하게 하여 드리지 못하였으나 후일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집안의 이름을 날리면 그것도 효도가 되는 것이다.

사회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은혜사상에 입각하며 은혜를 갚는 대상이 부모의 경우 그것을 “효”라 하였고 그 대상이 나라인 경우 그것을 “충”이라 하였다. 효는 소우주인 가족에게 그리고 충은 대우주인 국가에 향하는 보은적 행위라 하였다.

효자가 충신도 되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이 효와 충 둘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할 사항에 처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나라에 난이 나서 출병을 하여야 하나 부모가 돌아가시어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 이럴 경우 우리 나라는 효를 택하여 군인이라도 상주노릇을 하고 후에 국가의 소임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전통사회가 국가보다 가족을 상위에 놓는 가족주의를 가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가부장권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천륜에 의하여 이룩된 것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여 탄생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가부장권에 복종하는 것도 자연적이고 운명적이라 생각하였으며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IV.

전통적인 특징을 갖는 우리나라 사회가 근세에 들어와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변화의 경험이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유지하기에 불리한 것들이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변화의 시발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생활을 한 것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주권을 외국에 박탈당한 상황에서 사회의 여론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가장권을 뒷받침할 사회적 배경이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약화는 해방의 혼란기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6·25사변이라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더욱 가속화하여 갔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을 잘못만나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하고 한국에 태어난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사조까지

유행을 하였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한국말을 가르킬 것이 아니라 혀가 굳어지기 전에 영어부터 가르치고 우리 말을 없애 버리자는 말까지 나왔었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통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공뿔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체제는 공업사회로 전환하였고 이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을 표방하게 되었다.

공업사회를 이루려면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자본도 문제려니와 기술을 배우려면 기초학문으로서의 자연과학을 공부하여야 한다. 자연과학을 학습하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머리를 갖게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기술을 학습하고 기술을 원용하려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인의 출생과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이에 적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성취지위라 한다. 성취지위란 출생과 관계없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였으며 능력에 따라 사회에 봉사하였느냐를 말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니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전통사회는 개인들에게 생득지위를 준 것이다. 생득지위는 출생에 의하여 지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양반은 아무리 못나도 양반이고 천민은 아무리 유능해도 천민을 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집안에서도 장자가 아무리 못나도 부모의 제사를 봉사하는 종손이 되고 차남은 아무리 유능해도 종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하면서 사회에는 민주주의와 이에 따르는 평등사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과 제도에 파급되어 마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수반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의식과 계약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평등의식이란 앞서 성취지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 물론 평등의식이란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지 역량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보다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평등의식이지 모든 사람이 균일하게 보수를 받는 것이 평등의식은 아니다.

회사의 예를 들자. 회사에는 회사라는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다. 사장이 있어야 하고 총무부장, 생산부장, 경리부장 등이 있어야 하고 부장 밑에 과장, 과장 휘하에 직원이 있어야 하며 심지어 수위와 사환도 있어야 한다. 회사가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각자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에 따른 직책이 있어 어느 직책이 좋고 어느 직책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회사원은 회사에 다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회사라는 유기체에 충성을 하는 것이지 사장 개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사는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근대 회사는 계약사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나치리 만큼 오랜 시간 가족주의적 의식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계약정신이 없고 회사도 가족과 같이 은혜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업을 수행하는 회사도 회사원이 계약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사상을 갖고 있어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사장님의 은혜라 생각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사장님의 은혜라 생각할 때 자기 직책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개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사장 내지 상사에게 아침을 하고 충성을 다하여 직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V.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화와 전통적인 사고는 정반대가 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대표하는 가족주의는 말하자면 근대사회에 가장 불리한 의식이 된 것이다. 가장에게 숙명적으로 복종하던 가족주의가 회사와 같은 조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사회는 경쟁사회이고 능력주의를 전제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력과 개인의 능력발휘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가부장제 가족구조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단시일내에 근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부모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성장하여 가부장제의 의식을 가졌고 자녀는 현대식 교육을 받아 민주주의, 개인주의 의식을 가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순종을 요구할 수 없다.

더우기 부모가 갖는 인간관과 경험은 농경사회

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는 필요없는 경험이 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았다는 인생의 경험이 자녀들을 충고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가족원에게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주의는 더욱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대사회는 계약과 경쟁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주의는 이것과 정반대의 경우이다.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주의는 예컨대 회사의 경영진, 참모진을 가족원이 독점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가족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경우 등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들이 가족주의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것이 창업주가 있는 한 창업주의 탁월한 견문과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카리스마적 성격이 결여되는 기업 2세에 가서도 기업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족주의가 갖는 약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약점을 알면서도 우리나라에는 도처에 가족주의가 잠재하여 있고 오히려 가족주의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를테면 가족주의가 지연이나 학연으로 확대되어 친한 동향인을 능력에 관계없이 고용을 하거나 학교의 선후배 또는 동창의 인맥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 등이 현대판 가족주의의 특성이라 하겠다. 이것이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잃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인사를 취한 회사가 결코 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주의의 병폐는 특히 자녀의 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하여 학교 방과후에 태권도, 주산반, 영어반 등의 과외수업을 받게 하여 국민학교 어린이부터 단

10분의 여유도 주지 않는 것이 가족주의에 입각한 자녀양육 방식이다.

학교에서 자기 자녀는 일등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선생이 잘못이라는 생각 등이 가족주의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여야 하는 성취지위와는 거리가 먼 생득지위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른 특이한 현대사회를 건립하고 현대사회에 불리한 가족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VI.

물론 서구식 개인주의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양에서는 가족에서도 계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부는 가족이라는 유기체 앞에서 평등하고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부부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여자는 여자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되지 남자에게 인격적으로 종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에서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처음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처음 결혼하였을 때의 의도와 다르면 미련없이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 가족에는 이혼이 많은 것이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자유스러워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건 이혼부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문제이다. 의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무시하고 부부의 이익만을 고려하며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동양과 서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서구 가족의 약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동양식 또는 한국식 전통가족에 좋은 점도 있는 것이다. 한국식 가부장제 가족주의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 복종하고 가족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정신을 갖는다고 하였다. 가장이 강한 독재를 부리면 이러한 가족주의에서 자녀들이 희생이 되지만 가장이 민주적인 경우 오히려 자녀들은 양보하고 타협하며 협력하는 미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가장이 민주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부과되지만 가장이 민주적이고 가족이 가지런한 경우 오히려 한국적인 가족주의가 자녀교육에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에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타인과 타협을 하는 태도를 배우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가족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의 하나가 자녀에 대한 교육이 상실된 것이다. 사람이 유년기를 지나면서 마치 하나의 나무와 같이 옆의 가지가 뻗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물만 주게 되면 그것은 잡목이 되어 버린다. 나무를 고르고 잘 자라게 하려면 쓸데없이 뻗어나는 잔 가지는 쳐서 더 뻗어나가지 않게 하여야 된다. 이러한 깎고 다듬는 작업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아픔을 견디는 것이 인내와 양보, 타협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성장과정의 시련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유리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생활도 남녀가 개인주의를 내세워 사소한 의견대립으로 시작하여 부부가 이혼까지 이르는 것보다 우리나라 전통가족에서와 같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소한 일을 부부가 참고 견디면 결국 먼 후일 잘 참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VII.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에서 좋은 점은 근대사회에서도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대사회에서 불리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가족주의가 가족 내에서는 유리한 것이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에는 불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의 조직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가족주의적 의식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성취지위에 따라 사회가 보상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주의를 표방하며 자녀들이 가족에 충실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의식을 갖게 하여야 하겠다. 오늘날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부장제 가족은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현대 가족은 전통식도 아니고 서구식도 아닌 변태적 가족주의를 갖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 특히 도덕적 윤리교육을 위해 가족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주의를 가족내에 한정시키고 사회생활에는 다른 도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중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에서 좋은 점을 추려 그것을 계승발전시켜야 하고 현대사회에 불리한 전통은 수정을 하여 현대사회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는 없었으나 공업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이 만들어 우리의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